

제31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11. 4. 29(금), 16:00~19:3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전원 참석

- 참석 평의원 : 강명구 의장, 주동표 부의장, 윤성승평의원, 이재호평의원, 조중열평의원, 박정웅평의원, 박철균평의원, 서용훈평의원, 임원형평의원, 김진우평의원, 이해진평의원, 박윤규평의원, 윤갑희평의원 (이상 13명)

4. 회의안건

- 가. 안건 :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의장 선출
- 나. 자문사항 : 201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 다. 심의사항 : 2010학년도 학칙 개정(안)

5. 개회선언

의장 직무대리 주동표 : 성원이 되었기에 31차 대학평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시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명이 총 멤버인데 12명이 와계시고 한 분 오시는 중이니 100% 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호선되셔서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평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강명구 : 저는 사회대 행정학교수 강명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학교 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의원 윤갑희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산에 대부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윤갑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모르는 영역인데 많이 배우면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주대학교와 인연이 깊은데 이런 일까지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 윤성승이라고 합니다. 학교경영은 잘 모르는 분야여서 처음 배우는 심정으로 참석했습니다. 노력해서 배워가며 열심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서용훈 : 이번에 당선된 총학생회장입니다.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학생들만 생각하는 평의원일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들도 학생회장처럼 학생들만 생각하시는 평의원들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좋은 학교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주동표 : 무슨 대학입니까?

평의원 서용훈 : 경영대 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주동표 : 오늘 저희가 처리해야 할 내용은 2010 교비회계 결산(안) 자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평의원회 의장이 안제시기 때문에 먼저 의장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의장후보가 있으면 추천해주십시오.

평의원 이해진 : 제 생각에는 지난번 의장님께서 유보되셨기 때문에 기존에 부의장으로 계셔서 분위기와 사정을 잘 아시는 주동표 의장직무대리께서 남은 기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주동표 의장직무대리를 추천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주동표 : 추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의원회 의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의장으로써 갖춰야 할 자질과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썩 그렇게 적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훌륭한 평의원들 많으시니까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이해진 :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다른 여러 평의원들 의견을 여쭙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평의원 분들도 의장에 대한 추천과 의결권을 갖고 추천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로써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의원 이제호 : 주동표 의장직무대리는 경험도 많으시고 좋으신데 본인이 고사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분으로써 비록 신임이긴 하지만 강명구 교수님께서서는 사회대 학장도 하시고 국제대학원 원장도 하시고 그런 경험과 함께 행정학을 전공하시어 회의의 진행이라든지 행정적 진행이라든지 충분히 여러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평소에 제가 옆에서 봐온 모습이 있으셔서 강명구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주동표 : 강명구 교수님에 대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니까?

평의원 김진우 : 강명구 의원을 재청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직무대리 주동표 : 강명구 의원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해진 평의원께서 저를 추천해주셨지만 여러분 의사가 강명구 평의원을 많이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계시면 얼마든지 추천을 해주십시오.

...

의장 직무대리 주동표 : 좋습니다. 강명구 의원님을 추천해 주신 것으로 알고, 박수로 추대를 할까요?

평의원 이해진 : 주동표 의장직무대리는 고사하시겠습니까?

의장 직무대리 주동표 :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강의원님 단독 후보이십니다. 의장은 평의원 중에 정말 적임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발짝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구 평의원 의장님께 동의하시는 분께서는 박수를 쳐주시면 어떨까요?

(일동 박수)

의장 직무대리 주동표 : 그럼 전원 동의하신걸로 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강명구 의원님께서 의장이시구요,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의장 강명구 : 저는 항상 앞장서기 보다는 뒤에서 일하는 것에, 이름나는 것보다는 이름나지 않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데, 주동표 교수님께서 사정이 되지 않아 저에게 부탁하신 것 같아서 책임감이 많이 듭니다. 저희 평의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주대학교가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감시기관, 견제기관이 아닌 어떻게 하면 아주대가 좋은 대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입니다. 각자 견해가 있을테니 그런 의견을 모아서 소통을 하고 좋은 대학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아주대 위상이 예전만 못하는데 다 같이 힘을 합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화이부동' 인데 서로 같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조화롭게 소통을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옳게 고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힘을 보태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쓴 신문 칼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아지면 뭐 합니까? 브레이크 성능 개선 없이 엔진만 좋아지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제단이면 제단, 본부면 본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걸맞게 고쳐나가는 노력을 합시다. 저는 크게 나서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 조정하면서 회의 진행에 조력자 역할을 하

< 간서명 란 >


의 장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여 좋은 대학, 대학다운 대학을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장 강명구 : 먼저 참석위원 전원 다 소개해주셨고, 보고사항부터 하겠습니다.

간사 김근태 : 보고사항은 1페이지 아주대학교 평의원 인사 및 소개는 소개를 하셨으니 그것으로 같음하시고, 붙임자료에 평의원회 정관과 규칙을 첨부해놓았으니 참고 해주십시오.

의장 강명구 : 3페이지를 보시면 2011학년도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심의안건 제 1호가 있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의장님, 순서상 표지에 보시면 자문사항으로 있는 2010학년도 교비 회계 결산(안) 자문을 먼저하고 나중에 학칙 심의사항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은 부속병원 회계와 학교 회계가 있는데 부속병원 회계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간단하게 병원 먼저 발표해주시죠.

(병원경리팀장, 경리팀 파트장 인사.)

행정부원장 김윤기 :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입니다. 병원 경리팀장, 파트장 및 기획팀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 일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세부질문을 하실 경우를 대비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학년도 부속병원 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부속병원 결산(안) 작성 기준은 목적의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계획수립을 비롯해서 법적근거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속병원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2010학년도 아주대학교 병원의 총수입은 3,959억원입니다. 인건비 약 1,266억, 재료비 약 1,289억, 관리비 398억등 총 지출액은 3,763억원으로 19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실제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의 손익 현황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3페이지 내용은 자금흐름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한 내용입

< 간서명 란 >


의 장

니다. 4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 2010학년도
 아주대학병원의 의료수익은 3,417억원입니다. 이에 반하여 의료비용은
 3,378억원으로 실제 의료이익이 39억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의료외수익
 이 142억원, 의료외비용이 242억원을 감안할 경우 당기순손실이 약 61억
 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의료수익은 3,417억이고 그 중에서 임원수익이
 2,021억 외래수익이 1,200억정도 됩니다. 기타 종합검진 수익이 199억정
 도하여 총 3,417억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용은 인건비 1,512억 재료비
 1,289억 관리비 577억 등 3,378억으로서 의료이익이 약 38억이 됩니다.
 의료외수익은 이자수익 5억, 임대료수익이 55억, 기부금이 8억, 사업운영수
 익이 28억, 어린이집이 8억, 수탁연구수익이 3억, 잡수익 35억을 포함하여
 전체 142억이 되겠습니다. 의료외비용은 의료외수익과 대칭되는 비용이 대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이자비용과 사업운영비용은 사업운영수익에 대칭되는
 어린이집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운영비용이 10억 어린이집비
 용이 약14억, 수탁연구비 약 4억, 전기오류수정손실 23억이 있으며 이 부
 분은 특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 부분은 의료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의료
 수익을 받아들이게 되어있는데 의료수익을 건강보험에서 저희에게 줄 때 삭
 감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삭감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누
 적된 몇 년 계산치를 삭감을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작년
 이미 다 보고를 드렸지만 23억에 대해서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하기로 이사
 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10학년도에 반영하게 되었
 습니다. 잡손실이 54억,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의대전출 2억, 법인전출 110
 억을 하다 보니 당기순손실이 61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의 전기오류
 수정 손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관리회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실제 당기
 순이익은 약 22억원정도 발생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자산은 2010학년도 아주대학병원의
 총자산은 2,016억이며 그중 부채는 1,123억원이며 자본은 893억원입니
 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은 학교에서 이미 통합되
 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4페이지에 보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23억 정도 전부 삭

< 간서명 란 >



 의 장

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당기 순손실이 61억 정도입니다. 그것을 빼면 그래도 -35억 정도 됩니다. 아까 그런데 이익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 부분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재원수입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생주의에 따라서 현재 환자가 입원된 분들 약 천여명정도가 입원해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해 예상되는 재원수익을 계산을 했었는데 정확한 숫자를 계산해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한 명 한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입원 하실 때의 상태와 퇴원 하실 때의 중간 상태가 많이 변합니다. 예를 들면 입원하실 때 일반 환자로 오셨다가 중간에 건강보험 환자로 바뀌기도 하고 중간에 암환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적용기준이 다 다르게 됩니다. 매일 저희가 1일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환자 하나하나 매일 천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병원들이 재원미수금에 대한 것은 일정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누워있는 환자의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란 전산을 도입을 하면서 2007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전산이 스마트 전산을 한 이후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자 하나에 대한 추적계산이 불가능하다 보니 2-3년간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매년 이런 정리를 해왔어야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잡아 보려고 했지만 못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31억이 발생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2007년, 2008년 그 시점에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추산치가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와서 바로 잡기 위해서 숫자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저희도 사실은 재원수익에 대한 개념은 전체적으로 손익 현황에 들어가 있지만 자금손실은 아니고 이미 퇴원으로 모든 것은 퇴원에 대한 수익은 발생하고 퇴원후의 모든 미수금이란 것은 모든 개념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상치가 정확한 수치 조정을 한 부분이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자금 손실은 아닙니다.

평의원 이재호 : 여기지금 3페이지 수입조정계정(B/S)라고 하신 부분이 이

< 간서명 란 > 
의 장

내용입니까? 그럼 이게 과거 몇 년간 누적된 겁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2007년부터 3개년입니다. 실질적인 손실은 아니고 금년에 다시 계산해서 다 해봤을 때 금년에 21억정도 당기 순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수 조정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법인전출이 110억입니까? 그다음에 7페이지에 운영비용의 전출금 57억은 무엇입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사실은 이것을 계산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부터 기금회계와 등록금 회계를 분리 산정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예산에는 어차피 반영이 되었고 결산에서 일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개념으로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90억하고 위에 보시면 전입금 425억중에 9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부거래로 상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90억에 대한 것은 기금회계와 등록금 회계를 분리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출금과 전입금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당기수익을 발생할 때 법인전출금 110억원이 있으면 법인전출이 있으면 당기수익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익이 나는 만큼 법인으로 전출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순손실 60억을 기록하면서도 이 정도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병원이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 3-4월동안 환자가 많이 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확장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웰빙 센터를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웰빙 센터에 들어갈 돈이 현재 355억을 추산되어 있어서 그 중의 일부를 저희가 2008년에 약 70억을 전출을 했고 그 기금을 매년 만들어서 2009년도에 65억 이번에 65억 하는 식으로 해서 200억 정도 만들었고 또 금년 말에 65억 정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만들기 위한 전출금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74억 기본금 증가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비례해서 만들죠?

행정부원장 김윤기 : 법인 전입금 받은 부분입니다. 넘겨준 돈 다시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중간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성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을 매년 회계연도 말에 넘기는 것은 법인세도 감면받는 부분이고 넘겨 놓고 저희가 기성에 따라서 청구를 하면 그때그때 돈을 주십니다. 그 부분들

< 간서명 란 > 
의 장

이 28억 23억 나눠줘서 들어온 돈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건축건물은 아니고 현금으로 들어오고 기금으로 올라갑니까?

병원정리팀장 정완식 : 건축비 355억중에서 저희가 웰빙센터 관련해서 3층 증축되는 것은 예산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5층으로 본다고 할 때 3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265억 원화리스 60억, 산학 OH기금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 265억을 현재 법인에 200억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연도마다 전출하였고 올해 65억 넘어가면 265억은 모두 넘어 갑니다. 전년도 200억 기준에서 저희가 110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받았던 부분이 74억이 되겠습니다. 74억은 올해 지급한 금액을 다시 받습니다. 그것을 법인 기본금으로 해서 다시 받습니다. 그 부분은 265억은 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넘겨주고 다시 기본금으로 265억을 받습니다만은 265억은 전액 공사비로 재원을 활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74억은 당해 연도 분만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럼 건물을 지으면 실제로 돈을 지급한 주체는 법인입니까? 병원입니까?


병원정리팀장 정완식 : 병원입니다. 병원수익사업의 일부분을 저희가 더 추가로 증축하는 것뿐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잡 손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24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이 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4개를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표기하다보니 대손충당금 환입금이 1,700만원이고 위탁운영수익이 10억7천 국고보조운영수익이 20억9천 잡수익 2억9천해서 실질적으로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제 질문은 잡수익이 원래는 3억인데 작년에 24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궁금합니다.

병원정리팀장 정완식 : 잡수익은 전년도에 24억100만원 이었는데 그 부분으로 된 것은 저희가 잡수익의 계정을 더 자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 11번이 잡수익이고 10번이 국고보조운영수익이고 9번이 위탁운영수익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행정부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잡수익 11번에서 24억으로 해서 전년대비하면 -21억4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 간서명 란 > 
의 장

차이나는 부분을 이 부분을 계정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나눈 것 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잡 손실이 있습니다. 잡손실과 연계되는 겁니다. 8번에 위탁 운영비와 국고보조금 잡 손실이 있습니다. 같은 밸런스로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리팀 파트장 곽우실 : 이 부분은 병원이 작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회계 상으로 잡수익, 잡손실의 규모가 커지고 내용이 다양하므로 잡수익, 잡손실로만 표시를 하지 말고 실제로 취지에 맞는 계정을 늘려서 회계정리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010학년도에 위탁운영수입, 국고보조수입으로 계정을 늘리면서 금액이 나뉘져서 보여 지는 겁니다.

평의원 박철균 : 4쪽에 보면 의료수익이 162억 증가했는데 의료비용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보니까 퇴직금이 많이 충당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가 증가된 이유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자연증가 승급 및 승진에 대한 부분이 월평균 약 3.2%에 해당하는 3.5억정도가 늘어났고 수당부분 및 인력부분이 증가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이 인력을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학연금법이 개정 되면서 많이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월평균 증가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 12%정도가 증가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실제 인건비 책정한 것은 그렇지 않았습지만 전체적으로 6%정도가 승급도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증가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14쪽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퇴직급여가 거의 60%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한 퇴직자가 많은 것인지 기준이 바뀐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14페이지에 인건비의 두 번째 퇴직급여 61억이 전년대비 23억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사학연금법이 요율개정으로 기관부담금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등급별로 했지만 지금은 연봉으로해서 시간외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여 등급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 간서명 란 > 
의 장

2009학년도는 종료가 되고 2010학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2011학년도를 가도 이 숫자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정리팀 파트장 곽우실 : 사학연금법 요율 개정으로 등급에서 연봉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실 수 있는데 병원 직원 3천명 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간호사, 기술직, 사무직 등 직종이 워낙 다양하고 병원이라는 곳이 24시간 업무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정 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사학연금법상 등급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부담금이 늘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올해 바뀐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당으로 받는 부분도 합산하여 연봉으로 산정하겠다는 것이 사학연금 개정의 취지였기 때문에 등급이 아니라 지급받는 총액을 연봉으로 계산되다 보니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기관부담금의 50%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우선 적립금을 전출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흑자가 나고 상당히 운영이 잘 되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2년 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운영경비와 관련하여 지금 보시면 8억원정도 수익이 있고 14억원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이 있어도 이것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9년 결산 자문을 하면서 어떻게 자문을 드렸나 하면은 손실이 어디서 주로 발생하는지를 봤을 때 그 중에서도 특히 임대료가 한 달에 3,100만원씩 나가고 있고 1년에 4억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인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느냐는 말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 15억 들어간 것을 5년에 걸쳐서 갚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그것이 법인에서 지출이 되었던 겁니까? 몇년전에 발생했고 그 15억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교비회계입니까? 법인회계입니까?

정리팀 파트장 곽우실 : 말씀드린 리모델링 부분은 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비용으로 아주대학교에서 기숙사 건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건물은 회계처리상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간에 임대보증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은 교비회계나 법인회계가 아니라 병원회계에서 부담하였습니

< 간서명 란 > 
의 장

다. 리모델링 비용이 15억정도 발생을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아주대학교 병원 측에서 부담을 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부담된 금액만큼은 법인에서 그것을 수익사업 건물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측면의 세무상 문제로 임대계약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실질적인 임대료를 따로 받지 않고 5년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는 상계처리를 해서 회계상 숫자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계수상 매년 월 3,100만원씩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병원회계에서 표시해서 차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실제적으로는 이미 15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된 겁니까?

경리팀 파트장 곽우실 : 예, 아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원래는 기숙사용 건물로 들었는데 그 용도로는 도저히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용도를 변경하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한마디로 3,100만원씩 법인으로 돈이 가는 것이 아니죠?

경리팀 파트장 곽우실 : 예

평의원 이재호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29차 평의원회때 자문의견으로 갔던 겁니다. 건축기금이 74억 등등해서 법인에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그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자수익을 계산을 하면 그 액수도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이자수익 부분을 의료원에서 가지고 올 그런 용의가 있는가, 그런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때 제가 사실 보고 받기로는 이자를 청구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사업운영에 나온 수익을 예를 들어 40억 내지 50억을 법인에 전출시키지 않으면 저희가 법인세가 발생하는 돈이 22%에 해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할 경우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자를 청구하는 부분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돈 계산 깨끗이 하자는 측면만이 아니라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이 되면 그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반드시 지출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한 개의 통장으로 그 기금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통장에서 받

< 간서명 란 > 
의 장

생하는 이자수익은 당연히 그 기금의 일부가 될 것이고 따라서 건축의 목적으로 그 기금이 쓰여 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알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몇 년째 얘기되는 것 인데 2010학년도 1년 동안에 수도상사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것은 지금 임대료수익, 창고임대를 비롯한 임대료 수익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얼마입니까? 이전에는 15억, 16억 정도였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전체적으로 55억으로 표기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상당부분은 창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고료수익이 임대수익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약품이나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에 대한 부분이 병원으로 다시 리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것은 2011년도부터 이죠?

행정부원장 김윤기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유목적 사업 전출금속에 포함되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의대로 들어온 지정기부금 5억8천인가 중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나요?

경리팀 파트장 곽우실 : 아닙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다면 2009학년도와 비교해보면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09학년도에 저희가 설명을 듣기로는 발전기금 5억가량과 임대료, 창고료 등등해서 15-6억, 20억 남짓 들어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올해 2010학년도에는 줄어든 것인가요? 혹시 줄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리팀 파트장 곽우실 : 지금 구체적으로 업체로 해서 임대사항을 요구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산정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기부금 계정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으로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전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도상사에서 병원에게 임대료 수익으로 발생된 부분이 의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 간서명 란 >


의 장

에 대한 구체적인 손익의 현황에 대한 부분의 수익내역을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실제 그 업체가 의료원 급여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아까 말씀하신 것이 20억정도, 이번에 나타난 것이 19억정도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29차 평의원회에서 기초실장께서 베트남 투자의 가능성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능성만, 상당히 좋은 후보지가 될 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베트남 의사들의 연수 이런 것은 별도로 치고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예를 들어 MOU가 체결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강명구 :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하시죠.

행정부원장 김윤기 : 저희가 베트남 쪽에 건강증진센터와 클리닉을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진출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2차 사업으로 가정되어 있는 것도 거의 1,000억원 정도의 대학 병원급 정도의 병원도 2차 계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4년 9월 완공예정으로 현재는 우선 아웃라인만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건강증진센터와 클리닉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베트남 쪽에 개발되고 있는 지역 자체가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현재 이미 타당성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타당성이 있는지, 대학병원으로 그곳에 갈수 있는지 이런 법적 검토를 비롯

< 간서명 란 > 
의 장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강명구 : 듣기로는 아주대학병원이 지역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밖으로 나가야되는지요. 밖으로 진출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안과 밖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중에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병원으로서는 확장을 하는 부분을 평택 쪽에 미군 기지나 기타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쪽의 사업도 검토는 하고 있고 인근지역들의 대학 병원 급들이 많이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확장을 해서 어느 정 까지 병원의 기본 단위를 채우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 질문해주시고 발표해주신 회계 쪽은 잘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좀 쉬운 표현을 쓰셔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많은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 또 질문해주시죠.

평의원 이해진 : 연구수익, 이것은 외부에서 연구부탁을 받아서 진행 하신 거죠? 2009학년도도 그렇고 2010학년도도 그렇고 연구수익의 수입 잡은 것 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당해년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가 연속적으로 2-3년 사업이 될 경우 그런 부분이 연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런데 2009학년도 2010학년도 계속적으로 1억여가 차이가 나고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은 적자가 나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부원장 김윤기 : 저희가 3교대 근무 특성상 특히 간호사들이 타아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서 주간에 주로 맡겨놓게 하면서 병원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이직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의원 박정용 : 참고로 제가 병원 총무팀장을 맡고 있고 그 부분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말씀드릴려면 영유아보육법상 법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직장보육

< 간서명 란 >


의 장

시설의 경우 사업장에서 50%이상의 지원을 해야만 하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비용이 지출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원 자녀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직원의 자녀도 30%정도 받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대학 평의회회 추가 답변을 드린 부분은 여러 가지 의료원과 관련된 23-24페이지 인데 답변해 주신 것에 질문 있으십니까?

평의원 이재호 :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대, 간호대 운영비로 제가 사실 추가질문을 하나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대, 간호대로 얼마만큼의 돈이 지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답변은 235억4,600만원을 담으로 주셨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임상교원 인건비가 243억원이고 의대, 간호대 운영비가 2억4,6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초교원 인건비가 이전에는 의대, 간호대 운영비 항목에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아니죠?

경영팀 파트장 곽우실 :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 자립도가 50%정도입니다. 그 나머지 순수 운영비만 봤을 때 등록금이 100억 정도 들어오고 그 100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자립도는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비 100억에 대한부분은 부속병원에서 전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년도 말에 이미 60억을 전출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적게 전출이 되었습니다.


병원경영팀장 정완식 :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5번 사항 보시면 경상비 전입금 40억4,300만원하고 그 다음 법정부담전입금 22억5,800만원 그 부분이 운영비로 사용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경상비 전입금과 법정부담전입금 이 액수가 임대료 수입, 법인으로 전출되었던 임대료 수입이 17억정도가 더 왔습니다. 예년에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17억이 어떻게 계산된것인지 아십니까?

병원경영팀장 정완식 : 네,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당해년도 42억정도 되고 그 차익이 17억이 맞습니다. 그전에 연도별로 누적한 임대료 차액부분이 일시에 들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ZERO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전출금은 100%다 전입 되었습니다. 웰빙 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병원 관계하여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 간서명 란 > 
의 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윤기 : 죄송합니다. 제가 3월1일부로 업무를 맡게 되어 상세 부분 답변이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명구 : 앞에서 병원 관계 결산했습니다. 지금부터 201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자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처장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임총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2달이 되어서 결산보고 드리는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경리팀장에게 같이 문의하고 답변 구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처장님 안심하십시오. 의장은 한 시간 되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그럼 제가 앉아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강명구 :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2010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책자 맨 앞을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개정되어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중에서 교비회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리고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2,616억8천3백만원(내부거래 제거시 2,304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1페이지 자금계산서 요약자료는 좌측이 수입이고 우측이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1페이지 수입항목을 예산대비 결산 결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3페이지 내용은 지출항목의 예산대비 결산의 결과가 어떠한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금계산서의 수입항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항목이 4페이지에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출항목을 보다 구체적 보시려면 5페이지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예산대비 결산할 때, 예산은 본예산입니까 3차 최종추경입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최종 추경예산 기준입니다.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경리팀장이나 예산팀장에게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금계산서는 1년간 총 수입지출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록금수입이 총 1,231억3천만원, 전입금수입은 704억2백만원(내부거래 제거시 391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경상비가 42억, 법정부담금이 27억, 병원전입금이 246억정도 되는데 많은 부분이 의과대학 관련 전입금입니다. 전


< 간서명 란 >


의 장

입금이 전부 704억이라 말씀드렸는데 경상비, 법정부담금, 병원전입금, 산학협력단 전입금은 실제로 전입된 금액이고 교내전입금, 등록금회계, 기금회계전입금은 교내(내부)에서 전출입된 것이므로 내부거래 금액 약 312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입금 규모는 약 391억 정도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교내전입금은 본교와 의대간에 전출입이 된 것이고, 등록금회계는 등록금에서 기금으로, 기금회계는 반대로 기금회계에서 등록금 회계로 넘어간 것으로 내부거래 숫자로만 표시된 것 이어서 실제 전입금 규모가 약391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수입이 약46억, 국고보조금이 약79억, 교육부대수입이 약116억이 되는데, 교육부대수입도 대부분 수험료수입, 증명사용료, 임대료, 대관료 등 그런 것이 주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외 수입은 대부분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항목이 모두 운영수입이고 총 2,209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기타 자산수입인데요. 이게 약 266억 정도 되는데 그 구성내역은 기타자산수입이 9억 3천정도, 이것은 2010학년도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기금인출수입은 당기에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수입으로서 약 256억이며, 그래서 투자와 기타자산수입이 266억입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입금인데요. 이것이 5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학진흥재단의 장기차입금입니다. 2010학년도 수입 50억은 종합관 건축비용으로 5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빌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은 91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 지출항목은 5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보수는 교직원 분들 급여가 되겠습니다. 의대 교직원분들의 보수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941억이 지출되었고요. 관리운영비가 232억 정도 되는데, 관리운영비는 주로 시설 관리비 일반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구비로 지출된 것은 54억 정도가 되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학생경비로 지출된 규모는 459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장학금, 실험실습비, 기타 학생 지원비(기타 교육 지원비, 입사관리비 포함)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총 459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외비용은 5페이지에 나왔듯이 지급이자와 잡손실이 되겠습니다. 잡손실은 이전학기 등록금 환불이나 기타 사업비 잔액 반납이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지출은 기타자산지출이 대개 임차보증금을 지출한 금액인데, 약 9억 3천정도 되구요. 임의기금으로 적립을 위해서 적립한 금액이 약 9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6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고정자산 매입금이 약 308억 정

< 간서명 란 > 
의 장

도이며 무형고정자산매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매입이 308억 9천 8백만 원입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액은 2010학년도에 3억2천 3백만원. 기타고정부채 상환이 6천만원.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은 총 184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설명드렸는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의장 강명구 : 질문 하기 전에 먼저 예상하신 것 없으세요?

총무처장 이준섭 : 특별히 준비한 자료는 없지만,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수입 지출이 똑같이 떨어지는 게 맞추기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장 강명구 : 회계 상 어떻게 딱 맞출 수 있냐는 얘기죠?

평의원 박윤규 : 실제적으로 학교나 직장이라든가 이익과 손해가 있는데 이익과 손해 없이 딱 맞출수 있는지... 회계상 맞추기 위한 것인지 실질적인 것인지?

정리팀장 안영찬 : 특례규칙에 의거하여 회계상 수지를 맞추는 것은 의무사항이고요. 차기이월자금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그 자금들이 수입/지출 잔액으로서 차기로 이월 되는 자금입니다. 차기이월자금으로 계수를 맞추게 되면 당해연도 수입/지출이 일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전기이월자금, 차기이월자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회계를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회계원칙 같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대차대조표는 6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한 시점 2011년 2월 28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왼쪽이 자산항목, 오른쪽이 부채와 기본금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7~8페이지 구체 내역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2011년 2월 28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보면 총 교비회계(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된다)의 자산총액은 2,800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754억 9천 6백만 원 되겠습니다. 기본금은 2,045억 8백만 원으로 대차대조표상 요약되겠습니다. 투자자산이 한화콘도회원권 5구좌 있는데 이것이 1억 1천 5백정도 되겠습니다. 기타자산의 구성항목이 주로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임의기금이 약 338억 정도 되는데요. 임의 기금이 현재 구성내역을 보면 연구, 건축, 장학, 퇴직, 발전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적립기금 중 펀드에 투자해서 결산기준일 현

< 간서명 란 > 
의 장

재 최종 평가손익이 28억 9천만 원인데, 2월 말 평가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형고정자산이 1,615억 9천 7백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부터 특례규칙이 개정되어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유형고정자산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집기, 차량, 도서, 박물관, 건설가계정 등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 박물관유물, 건설가계정을 제외하고 감가상각을 한 금액이 약 1천 6백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취득금액이 3천 2백억 정도 되었는데 현재 유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후 금액은 1,615억 9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박물관 유물은 시간이 가면 값이 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총무처장 이준섭 : 유물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형고정자산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이며 약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 항목의 부채와 기본금을 보시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금, 기타고정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2010년도에 618억 5천 4백만 원이 되는데 대부분은 등록금 선수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차입금은 누적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32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기타고정부채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을 표시한 것인데 3억 6천 9백만 원. 그래서 실질부채는 장기차입금과 기타고정부채를 합친 약 135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본금 항목으로 보시면 기본금은 회사로 보자면 자본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학년도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특례규칙이 변경되어서 교비회계의 출연기본금은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출연한 것만 계상하라는 것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실질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실질적이라는 말은 법인의 출연재산으로 기본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만 기본금증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학생들 등록금 받아서 구입한 토지,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출연기본금에 넣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럼 종합관 지은 것은 학교 재단 재산이 아닌가요?

총무처장 이준섭 : 출연기본금 항목으로 표시하려면 재단에서 직접 출연한 재산으로만 구입한 자산만 출연기본금 항목으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 이재호 교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신전데, 원래는 재단에서 출연금 돈을 내서 건물을 지으라는 것인데 종합관은 같은 것은 약 300억 가까이 들었

< 간서명 란 > 
의 장

는데 비용들이 거의 다 학생 등록금인데, 학생 등록금 내서 재단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종합관은 교비회계의 자산(건물)으로 계상되어있으며, 등록금 재원이기 때문에 출연기본금(법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 기본금 액수는 재원이 어디였는지를 다 파악해서 이 액수가 나온 겁니까?

정리팀장 안영찬 : 네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을 구입한 것만 약 925억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당분간은 계속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단 출연금으로 추가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금액이 향후에 증가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예를 들어 종합관 건축은 재단에서 기여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리팀장 안영찬 : 당연히 안 들어갔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그리고 기본금 항목 중에 임의적립금이 있는데 임의적립금은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 적립금, 퇴직적립금, 발전적립금이 있는데 그 규모가 367억 6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차액이 전기 이월 운영차액이 548억, 당기 운영차액이 203억. 그래서 총 752억 4천7백만 원. 총 기본금 합계가 2,045억 8백만 원 이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기본금 계산할 때도 역시 감가상각이 적용됩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이재호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아까 기본금 항목을 조정할 때 감가상각분을 반영해서 기본금 항목을 조정했느냐는 말씀이시죠 ?

정리팀장 안영찬 : 출연기본금 대상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만 출연기본금을 재무제표에 나타낼 때는 출연가액을 기준으로 나타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되나요?

정리팀장 안영찬 : 나중에 멸실처리 하면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출연기본금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속합니다. 단지 기본금에 나타낼 때는 출연기본금으로 취득가액만 단지 표시할 뿐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자산 쪽에서는 이 항목들이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자본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팀장 안영찬 : 자본 쪽에 출연기본금을 표시하는 것은 최초에 재단에서 대학에

< 간서명 란 >


의 장

얼마만큼 출연을 했느냐 그 가액을 표시한 것이고(멸실처리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감가 상각한 금액만큼은 운영차액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평의원 윤성승: 출연기본금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자산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취득가액으로 표시합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자산부분의 고정자산은 각 계정별로 취득가액을 표시하고, 감가 상각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을 각 계정별로 기록하여 자산총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연기본금은 취득가액으로 표시하고 매년 감가상각 되는 금액만큼은 운영차액으로 계산되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9페이지에 운영계산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산서는 지난 1년간의 운영수익과 운영비용 및 기본금대체 금액을 표시하는 운영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운영계산서의 주요 내역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운영 총수익은 2,211억 2백만원(내부거래제거시 1,897억 7천 3백만원), 운영비용은 2,167억 3천만원(내부거래제거시 1,845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금 대체액은 96억 8천8백만원, 운영차액대체액은 -256억 8천3백만 원, 당기운영차액은 203억 6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계산서와 운영계산서상의 수입/수익과 지출/비용은 대부분 동일하며, 차이가 나는 항목을 설명 드리면 운영수익항목의 기부금수입은 현물기부금 79백만원(실습용 차량 수증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 항목 중에서 관리운영비는 356억 8천 7백만 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전 감가상각비 약 124억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10페이지 참조하시면 유형고정자산 상각비 123억, 무형고정자산상각비 1억 2천정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교육외비용은 42억 6천만 원이 발생되었으며(10페이지 상세참고) 외환차손이 1백만원, 고정자산처분손이 8만 원, 유가증권평가손실이 28억 9천2백만원이 반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 예비비사용 및 예산 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전용액은 기계기구매입을 위한 예비비전용액 890만원과 집기비품매입을 위한 예비비전용액이 540만원, 총 1천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계 종합관 준공에 따른 정수기, 싱크대 구입을 위한 사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너무 애쓰셨는데 박수한번 쳐 드립니다. 질문사항 많으실텐데...

평의원 조중열 :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출연기본금에 대해서 따로 뽑아서 표로 리스트하고 그랬는데, 출연기본금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다. 경기대학이 작년에 학교 인수합병을 위해서 공지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합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것에 전 재단이 발언권이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합병여부에 전 재단의 발언권이 없냐 하니까 출연금이 학교 전재산인가 뭔가의 1/3이하이면 전 재단에게 학교를 합병할 때 그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돈을 설립자가 낸 경우에는 합병해도 좋으나 물어보는데, 출연금이 얼마 없고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학교라면 분쟁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전 설립자에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기본금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지금 마침 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기본금이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교과부에서는 점점 명확히 할 것 같은데, 이 금액을 평의회에 공개하고 과연 그 금액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결산(안)에 따르면 거의 1천억 가까운 925억을 줬다는 건데요.

평의원 박철균 : 925억 정도가 1973년 이후에 법인이 학교에 실제 취득한 취득가액을 그대로 합산한 겁니까? 모든 취득에 대해 합산한 겁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2010학년도 결산 마감일 현재까지 법인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고정자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인플레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실제 취득가만?

경리팀장 안영찬 : 그렇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합산할 때 실제 취득한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학교로 넘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전입금으로 넘어온 부분이기엔, 거기에 대한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상세 내역을 다 공개해도 되지 않나요?

의장 강명구 : 조중열 의원님 말씀은 공개해달란 얘기죠? 어떻게 해서 학교가 930억 가량 출연했다는데 그 내역이 뭐냐, 그걸 밝혀라 그거죠?

경리팀장 안영찬 : 그 부분은 향후 자료요청을 해주시면 협의해서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당연히 제공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처장 이준섭 : 네, 그럼요.

평의원 김진우 :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이 수입예산에는 약91억 차기이월자금 지출예산에는 72억 잡혀있어서 밸런스 제대로 맞췄는데, 전체 운영결과는 약 20억정도

< 간서명 란 >


의 장

가 손실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들었고요. 임의적립금을 결산 시 어떻게 적립하느냐에 따라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보충설명을 안팀장 경리팀장한테 들겠습니다.

경리팀장 안영찬 : 말씀하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및 차기이월자금은 예산금액이므로 운영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산금액을 보셔야 합니다. 1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의기금인출수입 256억원을 기금에서 인출해서 사용했고, 2010학년도에 임의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96억 밖에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차기이월자금 184억에 대한 것은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나머지 잔액이고, 그 내역은 예산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기이월 및 차기이월자금 비교로 단기 순이익 손실 단기 순이익/순손실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용은 어떤 것이죠?

경리팀장 안영찬 :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예산팀에서 작성한 차기이월자금 명세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84억에 대한 세부내역 표시되어 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93페이지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조경숙 예산팀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예산팀장 조경숙 : 94페이지 보시면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나뉘어서 72억을 당초 예산상으로 승인을 받았고 결산상 미사용 차기이월액은 184억이고 11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을 미집행한 사업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거나 미사용을 하거나 적립을 할 부분들, 기부금이 들어와서 2월 28일에 적립하지 못한 것을 그것에 대한 리스트라고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적립금을 찾아 쓴 것이 적립한 금액에 비해 훨씬 많고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사용 전기이월금과 차기이월금 사이에 차액을 보면 90억 쯤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체로 따지면 자금상으로는 110억 정도가 작년 이맘 때와 비교할 때 줄었다고 판단하는게 맞겠죠.

예산팀장 조경숙 : 적립금과 이월금 차액을 포함시켜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이구요 다만 금년도 기금인출의 큰 사유는 종합관 공사비 약 300억 중에 건축기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110억원 이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작년 순부채증액 50억입니다. 총 차입금이 132억으로 되어있습

< 간서명란 > 
의 장

니다. 궁금한 부분이 개인의 자산을 관리할 때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게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때 50억 금액이 부담 없는 금액인지, 우리학교 규모에서 연 50억 정도 빌려 쓰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하고 빌려 쓴 건지 궁금합니다. 금년에도 약학관 신축을 합니다. 거기에 30억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52억6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그러니까 약학관 신축을 하게 되는데 내년 이때 결산할 때 차입금이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아닙니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지금 현재132억의 차입금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겁니까? 그럼 그게 적절한 규모라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네. 4.2%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액 대비하면 장기차입금 부분이 2,800억원 대비 132억이기 때문에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건물 신축할 때 외에는 차입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은 적정하고 그러한 건전성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지난번 사학진흥재단에서 50억 빌린거, 그때가 80몇억 이었죠? 언제 빌린거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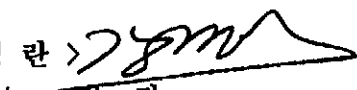
예산팀장 조정숙 : 그때 신학생회관 신축할 때 60억정도 됩니다.

부의장 주동표 : 지출과목에 관리운영비라고 있잖습니까? 1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 232억 5천만원입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네

부의장 주동표 : 9페이지 보시면 같은 과목명인 관리운영비로 356억 8천 7백만원으로 되어있고 2009년도에 비해 130억 정도 증가된 비용입니다. 과목명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상의 차이입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9페이지 운영계산서의 숫자는 감가상각비 약 12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고, 자금계산서에 있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이고, 운영계산서에는 자금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 즉, 감가상각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부의장 주동표 : 9페이지 학생경비 보시면 작년대비 28억정도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증가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장학금이 28억원 늘었습니다. 학생경비도 증가되었는데 기타교육지원비는 감소되었습니다. 학생경비 증가액 중 장학금은 대학원장학이나 국고를 통해서 받거나 외부 기부금 유치가 늘어난 것이 학생경비 증가 사유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2010년도 학생경비에는 입시경비가 포함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9년에도 입시경비가 학생경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예

평의원 이재호 : 4페이지 전입금 보면 경상비전입금이 42억1천2백만원인데 여기서 의대 분을 빼고 보면 1억6천9백만원이 나옵니다. 경상비 전입금이 2010년 본 예산 때는 10억이다가 1월말 3차 추경에는 4억으로 줄었고 결산에서는 1억6천9백이 되었습니다. 법인에서 들어오는 경상비 전입금이 1월31일에서 2월 28일 사이에 또 줄어들었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3차 추경 예산대비 미집행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3차 추경이면 1월이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여 줄었으나 지원이 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줄 것을 내년에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상비는 보통 대우장학, 개발도상국 우수 유학생 지원 장학, 학생회축제지원비, 총동문회 행사지원금 외에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내년 경상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말씀하신 거에 관련하여서 대우장학금이 2010학년도에 줄어들었습니까? 1억2천만원이었던 대우 장학금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대우장학금이 줄어든 만큼이 아니라 토지매입비부분을 예산을 했다가 내년에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09년에도 대우장학금 1억 2천만원, 2008년에도 1억 2천만원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액수가 줄어들었죠? 대우 장학금 자체가 액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대우장학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대우장학은 대우학원과 대우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인데 대우학원에서 줄어든 것 만큼 대우장학재단에서 지원되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제 질문은 1억2천만원 빼기 7,500만원. 4,500만원은 누가 부담
합니까?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4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저희가 대우장학이라고 나가는 것은 총 단과대별 학년별 수석자
들에게 지급되는 장학인데요 경상비 부족액은 대우장학재단에서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학부별 수석자들에 대해서는 아주사랑장학이 따로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작년에는 대우장학으로 나갔는데 올해는 아주사랑장학으로 바뀌
었다는 뜻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아니요 대우장학은 법대생 학년 감소로 일부분 바뀌었지 대우장학
제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작년 대우장학은 법인에서 온 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었는
데 아주사랑 장학은 교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다면 1억2천에서 7천5백을 뺀 4
천5백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이름만 바뀌서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실제로 집행되는 제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단대별 학년
별 수석자는 대우장학을 받습니다. 재원은 법인경상비와 대우장학재단 기부
금입니다. 학교가 수석자들에게 늘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까지 지급하던 장학금을 법인에서 적게 주셨군요. 기타경상비
에 대해 전에 항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에 법인 파견직원 인건비가 내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학교직원인데 법인으로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을 말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경상비전입금의 세부내역을 제가 1월 31일날 받은 자료입니다.
2009년에 보면 기타경상비 법인파견인력 인건비 3천3백7십만 5천원. 2008년 인
건비 1천2십2만4천원 그 항목이 있거든요?

의장 강명구 : 이재호 의원 말씀은 재단에서 장학금도 적게 주고, 재단직원 월급까
지 학교에서 주는거 아니냐? 이런 질문 이십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조교 한분이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
인 것 같습니다. 조교가 임명이 법인이 아니고 학교로 발령나서 그것에 해당하는 금
액만큼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해본 후 다시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렇게 액수가 줄어 든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들어봐도 갑작스럽
게 1월말 시점에서 4억이던 것이 줄어드는 것도 제대로 통보가 없이 줄어든 것입니

< 간서명 란 > 
의 장


다. 저번에 평의회에서 1월에 자문 의결을 낸 것은 이렇게 되면 자금운영과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문서로 가능하면 사전에 서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고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해달라 자문의견을 냈는데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그 프로세스를 밟기 위해서 언제쯤 예산이 실행되는지 공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예산은 편성되어있지만 실제 금액이 전입되는 시점을 포함해서 경상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적립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현재 우리학교의 자금상황이 여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줄여서 건축 운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출에 있어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축비입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총 네 개가 있습니다. 종합관, 약대, 웰빙센터, 실험동물실. 그 각각의 공사액수를 합치면 810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학교의 적립금 규모나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는 가장 큰 지출액수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었는가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지 건축물에 있어서 예를 들어 종합관은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자판하고 대창이라는 회사가 아마 컨소시엄 (Consortium)으로 들어왔고 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약학관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대창이 선정되었습니다. 웰빙센터는 지명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대우건설, 대우자판, 대창 세 회사를 지명해서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창이 선정되었습니다. 실험동물실은 역시 대우건설, 대우자판, 대창 세 회사를 놓고 지명경쟁입찰을 해서 이번엔 대우자판이 되었습니다. 우리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다란 4개의 건축물 공사가 대우자판 아니면 대창에 다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뼈대한 살림에 제일 커다란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나는 약학대학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비 얼마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저희는 시설관련은 파악이 안 되어서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상당히 덩어리가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대창이나 대우자판에서 학교가 가장 많이 싸고 튼튼한 건물 줬다라고 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경쟁을 조금 더 결합해서 아주대학교의 어려운 사정에 조금 더 썼

< 간서명란 > 
의 장


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06년도 신학생회관을 보면 평당 건축비가 땅값 빼고 500만원가까이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낮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합관이 평당 400만원, 2011년에 400만원 2006년에 500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좀 많이 틀린 것 아닌가 이런걸 객관적으로 하시려면 감정평가사나 대충 얼마면 적합한 편이다 이러면 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기록에 남기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 교수님 다시한번 정리해서 필요로 하는 답변서 내용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적법한가부터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소위 지명경쟁입찰이란 어떤 것인가, 4개의 건축물만 확인해도 이런데 완료된 최근 건축물은 또 어떠한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경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필요 없는 지출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 강명구 : 약학관 건축기금 이런걸 보면 거의 다 학생 등록금에서 나온 겁니다. 당연히 아껴쓰고 저렴한 가격으로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당연히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총무처 소관사항은 맞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 자체를 작년 이전에 모두 계약이 이루어진 건 이어서 제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평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실무자들은 경리팀, 기획처 예산팀이고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할 입장인데 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여부는 공사는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규칙이고 모든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예산회계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약학관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약학관을 건축하는 인가를 내줄 때 인가 심사단이 오기로 한 것이 2010년 9월경이었습니다.

간사 김근태 : 2010년 3월 2일에 약대 20명 정원배정 통지가 왔고, 그 공문에 하반기에 이행실사 점검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초 40명 정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20명 배정으로 확정되어 20명 차이에 대한 수정계획서를 5월경에 제출했고, 수정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는 공문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에도 하반기에 실사 온다는 내용이 있었고 7월 19일에는 10월중에 이행점검 실사를 하겠

< 간서명 란 > 
의 장

다는 안내 공문이 왔습니다. 약학관 신축은 8월 20일에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9월 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약학관 신축공사 사항을 정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교과부로부터 10월 29일 이행점검 실사를 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의장 강명구 : 시간이 급박하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간사 김근태 : 10월 29일 최종 실사가 왔습니다. 약학관 이행 계획서 중에 시설설 치물에 대한 계획서, 설계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저에게 보낸 자료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8월 26일 제12 차 건축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의결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근태 : 네 8월26일에 건축위원회를 했습니다. 7월 19일에 온 것은 이때 10 월중에 한다는 메시지가 왔었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증빙을 준비 해나라 하는 것 이 왔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 것은 구두로는 전달이 되어 있었 습니다.

의장 강명구 : 결과는 대창으로 된 것이죠?

간사 김근태 : 과연 정말 2012년 2월 준공이 될 수 있겠느냐를 놓고 역순으로 시 설팀에서 공사 가능한 방법 여러 케이스를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인허가 를 들어가고 실질 설계를 하고 공사규모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되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공사 과정인데 통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말씀해주시는 내용 이해합니다. 결산 자문해주는 이유가 이재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 할 수 있을까?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재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고질 적인 문제가 계속 있어요. 전번 평의원회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왈가왈부하다 시스템을 정책화 시킨 적이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답변을 준비 후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명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창건설과 자판건설과 대우건설 을 지명입찰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건설은 우리나라 1~2위를 하는 1군업체이고 대창건설, 자판건설은 2군도 아니고 3군입니다. 대우건설 1군업 체와 3군업체가 지명입찰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대우건설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겁 니다. 지명입찰을 한다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할 것인지, 아주대학교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3개 회사만 관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열외로 처리하셔서 다음 번에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은 결산에 대한 자문을 빨리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서명 관 > 

의 장

평의원 조중열 : 나머지 건물 중에 경쟁입찰을 해서 지었다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등, 3등, 4등, 5등한 회사이름과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해주십시오.

의장 강명구 : 건설 선정 과정에서 선정을 누가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조중열 : 입찰 거론회사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해진 : 건설 계약과정, 선정과정에서 원칙이 뭐였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요, 잡손실이 어떤 내용입니까? 5페이지 교육외비용에서 잡손실이 무엇입니까? 이재호 교수님, 의료원쪽 잡손실 잡는 기준과 대학이 다릅니까?

평의원 이재호 : 잘 모르겠습니다.

경리팀장 안영찬 : 잡손실 계정은 예들들어 이전 회계연도에 등록된 학생들은 이전 회계에 등록금 수입으로 계산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휴학으로 환불하게 되면 당기에서 그 돈을 빼줘야 하지만 당기 등록금수입 계정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잡손실이라는 계정으로 환불기준에 의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정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기수입에서 사업비 잔액이 나와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당기수입에서 차감을 해서 처리하지만, 만약에 이전 회계연도에 수입이 처리되는 사업비 잔액에 대한 부분은 당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계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을 잡손실 계정에서 처리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아까 제가 의료원쪽에 질문을 못드렸는데, 의료원 쪽은 2009년도 2010년도 모두 50억 이상입니다. 대학 쪽은 의대를 포함해도 10억이 안됩니다. 잡손실 잡는 기준이...

경리팀장 안영찬 : 저희는 수익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비용 같은 것도 수익사업에 통합이 되어있지만 저희는 등록금 회계의 기본적인 수입원이 확정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만 잡손실로 잡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김팀장님, 의료원에 잡손실 있지 않습니까? 큰 덩어리로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다음번 회의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김진우 : 교수님들이 국책과제 수행을 할 때 연구비 받은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국고보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리팀장 안영찬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산학협력단이 개설되어있지

< 간서명 란 > 
의 장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연구과제는 2004년 이후부터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과제를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 회계에 정부 관련된 연구과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지 교육사업 부분만 학교로 들어오고 연구과제에 대한 수입은 정부과제라고 하더라도 산학협력단 수입입니다.

평의원 김진우 : 산학협력단의 결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교비회계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산학협력단에서 관계되는 사항은 산학협력단전입금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 간접비를 학교로 진출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연구비로 사용합니다.


평의원 김진우 : 국책과제에 교수님들 인건비 포함이 됩니다. 교수님들 인건비는 학교교비에서 나갑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연구과제에 포함된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순수하게 학교로 들어오는 것은 간접비이고 교비에서 국책과제 연구와 관련된 부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산학협력단에 과제참여율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거기서 정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실제로 연구자가 받는 금액은 1년에 3백만원이라 조교 비용보다 작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펀드투자금에 대한 손실금에 대해 월 가월부가 많고 교내이슈가 크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교과부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쳐라' 하고 이유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쪽에도 나와 있듯이 임의기금 평가충당금이 28억9천2백만원이 평가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믿고 확실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2011년 2월 28일 기준으로 유가증권 잔액 증명서를 밝혀줄 수 있습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네. 필요하다면 펀드의 잔고증명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게 기준에 좀 모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야 서로 오해도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탁이 왔던 것 중에 하나는 지출 주요사항 5쪽에 직원보수 중에서 157억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원 보수규정 외에 별도급여 책정자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질 수 있느냐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2010년 박종구 총장 직무대행 시절 총장실, 부총장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자세히 밝혀줄 수 있느냐 하는 요구를 하신 분이 많습니다. 총장 업무추진비가 모자라기도 하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학내 사항과 더불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

< 간서명 란 > 
의 장

이 요구 하였습니다. 이름은 밝힐 필요가 없고 별도급여 책정자에 대한 카테고리가 가능한지, 액수하고, 2010년도 총장실 업무추진비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저희가 본예산 자문을 요청 드렸을 때 그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현황 부서장님들의 업무추진비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렸고 그날 보시고 다시 주시긴 하셨는데 다시 또 드릴까요?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는 각 부서별로 얼마가 배정이 되었고, 얼마를 썼고, 그런 표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세내역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의장 강명구 : 상세내역이라는 거죠. 학교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것도 좋고 앞으로 또 건축에 대해서 아껴 쓰자는 얘기를 좀 하면서 저희도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검사검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업무추진비는 기획처 예산파트 인데, 의장님께서서는 내역은 실제로 얼마 집행하였는지를 보여 달라는 거죠?

의장 강명구 : 신입총장 인터뷰할 때 걱정 말라 다 하겠다 해주셨으니까요.

총무처장 이준섭 :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고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50만원 이하기준과 50만원 이상기준으로 별도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식사를 했다면 누구와 언제 무엇 때문에 먹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내역은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비 같은 경우 30만원 업무 추진비는 50만원이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역이 상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어쨌든 영수증은 있다는 거죠?

총무처장 이준섭 : 경리팀장, 그 내역 가지고 계시죠?

경리팀장 안영찬 : 관련 증빙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어디에 썼는지는, 50만원 이상은 내역을 쓰라고 되어있고 50만원 이하의 내역을 안 썼을 테니까 영수증 해서 얼마를 썼는지는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총무처장 이준섭 :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데 기재된 내역이 있으면 내역서를 그대로 주시면 되는거죠. 저는 원칙적으로 회계뿐만 아니고 예산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총무처 소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무조건 다 해줄 겁니다. 의문의 여지없이. 그래야 서로 믿고 협의하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펀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환매를 하셨고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손실부분이 있긴 한데 남아있는 펀드도 환매기준과 절차는 기존의 방식과 똑같습니까? 원금+- 5% 그 정도의 평가액에 이르면 환매한다.

경리팀장 안영찬 :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그 기준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펀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변형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금이자형식 이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악성화 된다면 향후에 그런 부분 처리는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펀드환매 수익이 3억9천2백만원인데 수수료는 빠진 금액입니까, 그 액수에서 수수료가 따로 나갔습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별도로 지급된 것은 없고 펀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평가현황에 잡힌 것입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결산기준으로 주식형펀드가 약11억 정도 손해가 나있고, 부동산 펀드가 약17억 정도가 되겠죠. 부동산 펀드는 당연히 원본이 올라오면 long-term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기준에 따라서 환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만 과거처럼 원금회복 후 즉시 환매하지 않고 관련위원회를 거쳐 최선의 환매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장 강명구 : 문제의 핵심은 투자해서 남기려고 투자하지 누가 잃으려고 투자하겠습니까. 그전에는 관리하는 기준을 잘못 잡아서 돈을 섞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하니까 기재할 때 거짓으로 기재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하니까 장기적으로 고쳐야 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 벌려고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선물환 계약해서 13.3억 손실 봤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기장이

< 간서명 란 > 
의 장

되어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정리팀장 안영찬 : 감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숫자로 비용으로 반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의 판단은 이 부분은 선물환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분명하게 법률상 계약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비용으로 인식해서 잡는 것 보다는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이런 진행되는 사항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상에 2008~2009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이 내용이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 문제가 법정으로 소송분쟁에 대한 소지가 분명히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사들이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하면 만약에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 비용으로 카운트 했다는 것은 학교가 어느 정도 이것을 인정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회계사 입장에서는 향후에 발생할 비용적인 부분이 학교에 존재하고 있기에 그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해서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무제표 주석상에 그것에 대한 금액과 분명한 사항을 기록해두면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 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게 만기가 된 상태는 아닙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그것은 우리 안팀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풀이를 하자면, 선물환 계약 부분은 명확한 입장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선물환 계약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무효주장을 했고 사실상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물환 계약을 맺을 때 첫째는 사립학교법상 선물환 계약을 맺으면서 환차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담보요구를 해 왔습니다. 담보를 설정해준 것 자체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교과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두 번째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주체가 학교재단 이어야 하는데 재단이 위임을 해서 계약을 맺었다면 별론으로 하지만 위임을 하지 않고 아주대학교 총장 직인을 찍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크를 못했다가 재단에서도 무효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효주장을 해서 환차손이 났던 13억 3천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차년도 6천만원만 지급을 하고 2차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무효주장을 해서 하나대투에서 환차손 분 13억에 대해 요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하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루트에서는 '우리가 먼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느냐' 이런 입장도 있어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 간서명 란 >



의 장

데 무효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회계상 으로는 어떻게 표시할거나. 공인회계사는 법적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기를 할 수는 주석사항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무효계약이기에 13억 9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된다면 앞으로 부기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참고하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일단 계약상 지급의무는 있는거죠? 이미 6천만원은 지급을 했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하셨죠?

정리팀장 안영찬 : 비용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불확정적인 채무에 대해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정리팀장 안영찬 : 그것은 재무제표 주석상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무효 주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는 나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소송상 우리가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선물환 거래와 관련해서 몇 백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선물환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주 패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kiko하고는 성질이 달라서, kiko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것은 강행법을 위반해서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고 설사 무효는 소송상 주장하지 않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받아들이면 끝나거든요. 불확정채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불확정채무는 평가손실이 낳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손실이나 그런 것을 불확정 채무라고 하지 계약 자체가 무효여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어서 채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계약자체가 무효인지는 확정적이지 않죠.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밝혀 봐야하는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끝난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습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선물환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강행법을 위반한 계약을 한 것 이어서 이미 무효주장을 한 결과 몇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대투에서도 인감관련 해서 약점이 있습니다. 아마 수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같이 큰 조직에서 계약을 할때에 무효할 수 있는 계약을 쉽게

< 간서명 란 >


의 장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3페이지 연구비 결산에서 연구비가 2.1%, 학생경비가 17.5% 이고 보수가 36%로 나와 있는데 연구비나 학생경비 같은 것이 대학 위상을 높일 수 있을 수준으로 책정 된 것인지 국내대학 평균 대비해서 어느 수준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결산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연구학생경비가 한국대학신문에 난 것을 보니 전국에서 비율로 따지자면 7위이고 절대금액으로는 12위로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저희학교가 상당히 연구학생경비에 전체 예산대비 포선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전반적으로 학교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기부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평의원 윤갑희 : 액수가 줄었으면 모르는데 구성비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구비와 학생경비 구성비가 예산보다 결산 쪽에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물어 보는 겁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전입된 전입금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전입된 금액 중 18억은 집행을 못하고 차기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처 예산 중 신입교수들이 오시면 3천만원 1천5백만원 예산배정을 해드리지만 1년 2년 거쳐서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보면 가운데 썸. 연구팀의 연구조성비 적립금 연구기금적립예정 18억 2천이 있습니다. 18억 2천이 집행을 못하셔서 차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수행하시는 기간이 교수님들 마다 각각 다른 연구 수행기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차기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경비 같은 경우도 국고보조금, 등록금수입이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직접적인 학부학생 경비도 아니고 특수대학원의 학생 경비가 미집행 된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입학생을 생각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90명만 들어오면 10명에 해당하는 포선만큼 각 항목별로 예산이 남게 된다. 타이트하게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부서에 요청을 하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를 좁게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은 진도율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학생경비 관련해서 답변해주셨는데 학생경비는 학부 외에도 포함

< 간서명 란 > 
의 장


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학생회비에 관련된 학생경비가 2008년도 수준을 회복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산팀장 조정숙 : 2011학년도에는 예산 편성하는 기본 테마를 10%절감 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총학생회에 별도의 예산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서 더 낮은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운동을 했기 때문에 2010학년도부터는 재무회계구칙이 변경되어서 감가상각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적립금으로 확보해야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그게 1년의 감가상각이 연간 40억정도 됩니다. 그 40억을 어떻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 모든 부서에 예산중 고정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운영성 경비에 대해서는 10%를 절감을 해주십시오라고 설명을 하면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학생회 예산도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2008년대비 2009년, 2010년 사업을 보시고 직접적으로 사업 분석을 재평가해서 폐지해야할 사업, 유지해야할 사업, 또는 확대 유지해야할 사업을 재판정하셔서 학생처에 제안을 해주시면 기획처가 다시 한번 검토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2008년 기준이 2억7천정도 됩니다. 5월에 3일정도 쓰는 축제비용이 8천7백만원정도 었습니다. 2011년도 총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08년도 총학생회에서 3일동안 썼던 8천7백만원보다 작은 8천5백만원입니다. 10% 삭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10%가 아닌 70%삭감입니다. 작년대비 반액입니다. 50% 삭감입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 사업증액을 하려면 판정기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서 삭감된 기준은 무엇인지 2008년대비 70%삭감이고 작년대비는 50%삭감입니다. 삭감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2009년도와 대비하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등록금 협상을 하면서 7차 과정을 거치면서 2.4% 등록금을 인상을 한 바 있으나 학생 측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동결을 요구해왔습니다. 2개월간의 협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추가로 드린바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합산이 되면서 2011학년도와 비교가 되는 것인데 그 이전 숫자와

< 간서명 란 >


의 장

는 비슷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과는 2011년도 예산이 큰 차이 없을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오해가 없도록 숫자와 표 만들어서 학생측에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시간 20분동안 했습니다. 요구했던 사항 밝혀주시고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의료원과 학교간에 결산보고서 양식이 너무 다릅니다. 같이 맞추자고 전부터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다릅니다. 가능하면 예산자문회의도 마찬가지로 결산자문회의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보고양식을 최대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리팀장 안영찬 : 저희 보고양식이 이사회 보고양식입니다. 의료원은 수익사업이여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법인, 아주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이 공통 품으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병원은 Non-profit 조직. 수익단체 이므로 굳이 하자면 못 맞출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실제법인의 출연금으로 구축된 자산 (토지/건물/구축물) 즉 ‘출연기부금’ 항목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8, 2009년 법인파견 직원인건비에 대한 확인 요청하셨습니다. 법인의 경상전입금 약정 및 변동에 있어서 문서에 의한 적절한 통고 절차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종합관, 약서관, 웰빙센터, 실험동물센터의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 입찰 사유와 내용 그리고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 명단까지 포함해서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총장실 2010년 업무추진비 상세 사용 내역, 교원 중 별도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 책정 기준 및 내역 (익명)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밖에 펀드 잔고통장 사본 제출, 총학생회 경비 예산 변동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잡손실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과 학교의 결산서 뿐 아니라 예산서의 양식과 내용이 상세함에 있어서 차이가 크므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위원장님 한 가지 계약직 관련하여... 말씀하신 계약직 관련한 급여지급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강명구 : 정규교원에 대한 별도급여책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원에 대한 교원급여체계 외에 따로 계약해서 인정하신 것이 있을 텐데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카테고리별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혹시 질문하신 안전 중에 추가적인 것이 있으시면 지금 지적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심의 안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평의원 박정용 : 의료원 잡손실은 대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및 보상금 등입니다.

의장 강명구 : 마지막으로 심의사항이 남았는데요, 3쪽 보시면 심의사항 학칙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교무회의 다 통과한 건이죠?

간사 김근태 : 네, 총 9건이 됩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 총무처장님 가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간사 김근태 : 총 9건입니다.

의장 강명구 : 정관 개정 35조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간사 김근태 : 네. 그렇습니다. 거기 밑에 줄 그어 놓은 것이 각 개정사항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제가 짧게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원기구에 '임상치의학대학원' 추가하는 것, 그 다음 '임상치의학대학원' 학과 명칭 및 전공명 변경, 법학전문대학원 학사 조항 개정, 건설시스템공학연구센터 신설, 글로벌경영학과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신설, 금융공학과 입학정원 감축, 화공·신소재공학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자연과학부의 모집단위 변경, 약학대학 정원 10명 증원, 자유전공 폐지 및 신설 당시 학부로 정원 환원(90명). 이것이 전부다 교무회의에서 논의하신 사항이시죠? 다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자유전공 폐지 및 신설당시 학부로 정원 환원이 이해가 안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간사 김근태 : 자유전공을 신설할 때 단위학부별로 일정비율로 정원을 감축해서 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축했던 비율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평의원 서용훈 : 알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자유전공에 대해서 많이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잘 할까 했는데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특수하게 잘 만들어서. 미국에서도 플랜 1, 플랜2가 있습니다. 메디컬스쿨, 로스쿨 같은걸 잘 해서. 이걸 잘 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심의안전에 대해

< 간서명란 > 
의 장

서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걸로 할까요? 의료원 의장선출, 의료원 및 본교의 2010년도 결산자료를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안건 통과시켰습니다. 많이 드린 것도 없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학교 잘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첫번이라 사회도 잘 못보고 했는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아주대학교 평의회 2010학년도 결산 자문의견

교비 회계와 병원 회계 모두 2010학년도 균형재정과 학교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상당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개선점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바이다.

1. 대학평의회에 보고된 병원의 결산서와 교비회계 결산서의 양식에 차이가 크며 내용의 상세함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2. 교비회계에 있어 예산에 비해 거의 전 항목에서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나 전년도에 비해 연구비와 기타교육지원비가 줄어든 반면 차기이월금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등 일부 과도한 재정 긴축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이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3. 2010학년도 추경예산 자문에서도 지적되었던 법인에 의한 갑작스러운 전입금 감소 통보가 이번에도 재연되었다. 2010학년도 본예산 10억원이던 법인의 경상비전입금이 추경에서 4억원으로 수정된 것이 2011년 1월 말이었는 데 2011년 2월 중 이 액수가 1.69억원으로 더 줄어들었다. 이번에도 구두 통보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문의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예산 작성시 법인에서 대학으로 통고해 준다고 하는 경상비 전입금과 법정부담금 약정 액수에 대해 법인은 전혀 이를 준수할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는 기관 내 신뢰를 저하시키며 학교 재정의 운용에 있어 예측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추경예산 자문에서 제시한 대로 법인의 전입금 약정 및 변동에 있어 문서에 의한 적절한 통고 절차를 확립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재단 경상비 전입금의 갑작스러운 감소는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인에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법정부담금의 부담 노력에 대해서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준수 의지를 요청하는 바이다.
4. 웰빙센터 건축을 위해 의료원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기금의 이자수입은 그 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자 수입은 기금으

< 간서명 란 >

의 장

로 활용하되 매년 일정한 액수를 법인 운영비로 지원하는 등 양성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2010년 추경예산 자문의견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5. 최근 완공되거나 진행중인 교내 건축물 4건(종합관, 웰빙센터, 실험동물센터, 약학관)은 추정 공사비 총 810억원으로 지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런데 이 4건의 시공회사 선정에 있어 약학관은 수의계약, 웰빙센터와 실험동물센터는 3개사 만이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로 진행되었다. 게다가 4건의 시공사가 모두 대우자판건설 혹은 대창건설임을 볼 때 선정과정에 있어 적절한 경쟁 관계가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건축비의 절감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10억원의 지출이 전액 교비회계와 병원회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대학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사안이므로 향후 대학평의원회와 대학본부가 공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과 계약 내용에 대해 살피고 건축비 절감을 가능하게 할 적절한 프로세스를 설립,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

2011년 5월 9 일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강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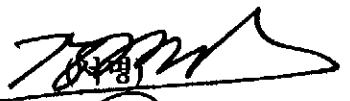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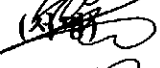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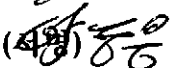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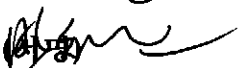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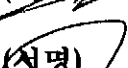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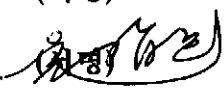


< 간서명 란 >



의 장

2011년 4월 29일

의 장	강명구	 (서명)
부의장	주동표	 (서명)
평의원	윤성승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조중열	 (서명)
평의원	박정웅	 (서명)
평의원	박철균	 (서명)
평의원	서용훈	 (서명)
평의원	임원형	 (서명)
평의원	이해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기 록	김근태	(서명)